가사·보육 등 '돌봄 노동자'

성희롱·인격무시·저임금 '3중고'

사회적 인식전환 시급

#1 광주 모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장모(여·52)씨는 최근 자신이 돌보던 70대 환자로부터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을 당했다. 환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을 돕던 장씨의 몸을 손으로 더듬은 것이다. 장씨는 곧바로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정중히 항의했다.

그러나 환자는 되레 장씨의 손을 붙잡고 '수상한' 행동을 계속했다. 환자의 성추행으로 간병 일에 대한 회의를 느낀 장씨는 일을 계속해야 할지 고민이다.

#2 가정관리사 박모(여·47)씨. 박씨는 자신을 고용한 60대 노인 때문에 속병이 났다.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는 노인에게 수차례 '가정관리사'라고 불러줄 것을 요구했지만, 들은 체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 노인의 초등학생 손자까지 자신에게 가방을 던지며 "이것 좀 치워"라고 말하는 등 반말을 하거나 버릇없는 행동을 해 자존심이 크게 상했다.

가사·간병·보육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돌봄 노동자들이 성희롱이나 인격 무시 등 정신적 스트레스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돌봄 노동자를 근로자로 여기지 않는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행한 '돌봄서비스 제공 인력의 근로실태'에 따르면 전체 돌봄 노동자의 95.1%가 여성이며 이 중 73.6%가 40~5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전국 지역자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돌봄 노동자 9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34.8%(318명)가 서비스 이용자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돌봄 노동자들이 성희롱이나 인격무시에 시달리는 것은 돌봄 노동자를 '파출부' 또는 '식모'로 여기는 이용자들의 그릇된 인식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과거 가정에서 이뤄지던 가사나 간병, 육아 등의 일이 전문화돼 근로의 형태로 바뀌었지만 이용자들은 여전히 돌봄 노동자를'집안일 하는 사람'정도로 여겨 함부로 대한다는 것이다.

광주여성노동자회 주경미 회장은 "돌봄 노동자에 대한 호칭부터 바뀌어야 인식도 바뀔 수 있다. 번거롭더라도 '가정관리사' 등 정확한 호칭을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금 등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도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돌봄 노동자들은 월 평균 79만4000원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전체 돌봄 노동자 중 60%가량은 한 달 월급이 80만원 미만이다.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4대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돌봄 노동자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특히 간병 등 일부 돌봄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시간당 4110원인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어린이나 노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돌보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노동 강도가 높은 직업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전남 공모제 교육장 최종후보 23일 발표

전남도교육청이 개청 이후 첫 도입해 실시한 주민추천 공모제 교육장 최종 후보를 23일께 발표한다.

도 교육청은 장만채 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교육장 공모제를 목포와 무안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도 교육청은 응모한 2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4일까지 심사를 진행, 1차 서류심사에서 지역별로 3명으로 압축하고 2,3차 심사를 진행했다.

장 교육감은 이주 내로 서류심사와 심층면접, 상호토론 등을 거쳐 무(無)순위로 오른 2명 후보를 교육계 안팎의 의견을 들어, 이 가운데 1명을 낙점할 계획이다.

이어 도 교육청은 다음주 인사위원회를 열어 교육장 후보를 최종 결정한 후 주요 보직과장 명단과 함께 발표하고, 9월1일자로 임용할 예정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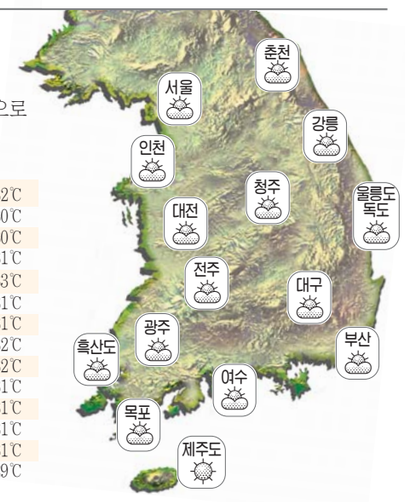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49분 해짐 19시 25분 달뜸 08시 06분 달짐 20시 30분

운전조심

아침에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안개가 기는 곳이 있겠다.

광 주	구름 많음	24/32℃
목 포	구름 많음	24/30℃
여 수	구름 많음	24/30℃
완 도	구름 많음	25/31℃
구 례	구름 많음	24/33℃
해 남	구름 많음	24/31℃
장 흥	구름 많음	24/31℃
고 흥	구름 많음	24/32℃
순 천	구름 많음	24/32℃
영 광	구름 많음	24/31℃
진 도	구름 많음	25/31℃
전 주	구름 많음	24/31℃
남 원	구름 많음	23/31℃
흑산도	구름 많음	23/29℃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1.0~2.0m
먼바다	서~북서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1.5~2.5m
먼바다	남서~서	2.0~3.0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매우 높음	경고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1.5m
먼바다	서~북서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0~1.5m
먼바다	서~북서	1.0~2.0m

	밀물	썰물
목포	03:34 15:54	08:50 21:02
여수	10:31 22:52	04:15 16:30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3(금)	14(토)	15(일)	16(월)	17(화)	18(수)
날 씨						
최저/최고	25/29	26/31	25/31	25/31	24/32	24/32

외국인 유학생들이 11일 담양 '예수마음의 집'을 찾아 노인들의 말동무를 하며 안마를 해드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대 언어교육원 외국인 유학생 30명

양로원서 봉사의 하루

담양 '예수마음의 집'

한국문화와 언어에 심취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시골 양로원을 찾아 어르신들과 하루를 보내는 뜻깊은 봉사활동을 벌였다.

전남대 언어교육원 외국인 유학생 30명은 11일 오후 담양 '예수마음의 집'을 찾아 노인들에게 연극과 춤 등의 공연을 선사하고, 안마를 해주며 한국 문화를 체험했다.

몽골·이탈리아·스페인·이란 등 9개국의 유학생들은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며느리가 점차 적응해 시부모를 공경하게 된다는 내용의 연극을 선보여 노인들의 갈채를 받았으며, 뉴질랜드 가요와 중국의 전통 춤 등으로 즐거움을 더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타 문화 체험 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살레시오 초등학교 학생들의 공동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유학생의 연극에 이어 살레시오 초등학교(기영민·김상우·김민재) 학생들의 공연이 진행됐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은 강한 사투리 탓에 알아듣기 힘든 노인들의 말에 일일이 대꾸하며 40여분간 안마와 말동무를 해드렸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지검 '검찰시민위원회' 발족

광주지검이 수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검찰시민위원회'를 발족했다.

광주지검은 11일 김혁종(광주대학교 총장) 위원장을 포함, 대학·종교단체·여성단체·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각계 인사 9명에 대해 검찰시민위원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시민위원은 앞으로 공소제기·불기소처분·구속취소·구속영장 재청구 절차의 적정성에 대해 검사의 심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회를 소집, 심의·의결한 후 그 결과를 검찰에 통보하게 된다.

공소제기와 불기소처분은 9명의 시민위원 가운데 9명 전원이 출석해 합당 여부를 가리게 된다. 또 구속취소나 구속영장 재청구는 7명 이상 출석에 의결하게 된다.

검찰은 시민위원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시민위원의 심의결과와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충분한 이유를 설명하게 된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스폰서 검사 특검' 업체 3곳 첫 압수수색

성매매 등 확인 작업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중인 민경식 특별검사팀이 11일 향응 제공자의 회사를 처음으로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울고검 수사관 향응 접대 의혹과 관련해 접대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가 박모씨가 운영하는 서울과 경기도 고양시의 회사 3곳으로 수사관을 보내 영업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수사관들의 금품수수와 성매매 사실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한 자료와 제보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수사관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다른 사건으로 부산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는 정씨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18일 만료되는 만큼 법원과 협의해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한 뒤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가짜 '블루베리 100%'

설탕 등 섞어 판 6명 적발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100% 블루베리만 들었다며 장수식품으로 소개된 음료 상당수가 설탕, 물엿을 섞어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블루베리 농축액을 일부만 넣고 설탕과 포도 등 다른 식품원료를 섞은 음료를 '블루베리 100%'로 속여 표시·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보령제약 위탁업체 대표 김모(32) 씨 등 6명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올해 2~7월 음료의 원가를 낮추기 위해 미국산 블루베리 농축액 3~45%에 포도농축액 등을 섞어 만든 약 5억2000만원 상당의 음료를 '블루베리 100%'로 허위 표시한 뒤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순천대 간호학과 첫 신입생 뽑는다

2011학년도부터

순천대(총장 임상규)는 2011학년도부터 간호학과 신입생을 선발한다.

순천대는 11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간호학과 신설을 승인 받아 내년 학기부터 간호학과 신입생 25명을 선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순천대 간호학과 신설은 전남 동부권에 위치한 여수국가산업단지, 광양제철 및 연관단지, 율촌 산업단지 등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 간호사를 전담·배출할 수 있는 고급 간호인력 양성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역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순천대는 지난 2월 약학대학 유치에 이어 이번에 간호학과가 신설 승인됨에 따라 지역사회에 우수한 보건의료 전문 인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